

두산  
인문극장  
2025



5.20-6.7

지역  
LOCAL

엔들링스  
Endlings  
by Celine Song

LOCAL

# 두산 인문극장 2025

## 지역 LOCAL

두산인문극장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인문학적, 예술적 상상력이 만나는 자리로 매년 주제를 정하여 그와 관련한 공연, 전시, 강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

2025	지역 LOCAL
2024	권리 Rights
2023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
2022	공정 Fairness
2020	푸드 FOOD
2019	아파트 Apartment Nation
2018	이타주의자 Altruist
2017	갈등 Conflict
2016	모험 New Imagination on the Extended Territory
2015	예외 例外 Exception, Mutation, or Abnormality on the Borders
2014	불신시대 The Age of Distrust
2013	빅 히스토리: 빅뱅에서 빅데이터까지 Big History From Big Bang to Big Data

---

## 당신의 지역은 어디인가요?

우리가 ‘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역은 보통 경계가 나누어진 물리적 공간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단순한 지리적 구분만이 지역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지역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기억, 관계, 문화가 축적될 때도 형성된다. 우리가 지역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방식에 따라 소속감을 느끼는 모든 장소와 공동체가 지역(LOCAL)이 될 수 있다. 2025년 두산인문극장은 ‘지역’을 다양한 방향에서 이야기하며 우리 사회가 마주한 지역의 모습을 함께 들여다본다.

‘지역’은 지리적인 면에서 다른 곳과는 구별되는 지표상의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다양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구성되고 그곳만의 고유한 성격인 지역성을 갖는다. 고유한 성격은 인간과 자연 간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다른 지역에 형성된 성격과 상호작용하기도 한다.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는 거리가 가까운 지역 사이에서만 작용이 활발했지만 이제는 거리가 먼 곳들 사이의 교류도 늘어나고 있다.

지역의 문제는 ‘다름’ 때문이 아닌 ‘쓸림’ 때문에 일어난다. ‘지역’이라는 말은 원래 치우침이 없는 말이지만, ‘쓸림’ 때문에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뜻도 가지게 되었다. 중심에서 벗어난 것이 소외나 차별, 심지어 소멸이라는 현상과 연결되어 대표적인 불평등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인류가 탄생해서 이동을 시작하면서 지역이 만들어진 3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화해 온 지역을 인류학, 지리학, 생물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관점으로 들여다본다. 우리가 지역의 중심을 잡고 전체가 조화로운 상태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한다.

## 강연

연강홀

### 1만 년의 고독: 인류의 이동과 지역의 탄생

윤신영 / 과학기자, 《에피》 편집위원

4.7

### 조선 후기 국토의 발견과 살 곳의 모색

안대회 /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4.14

### 지역과 우리, 나의 영토성: 이주와 정체성

신혜란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4.21

### 저출산,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현상

임동근 / 도시지리학자, 한국교원대학교 연구원

4.28

### 로컬푸드와 장소 정체성

박찬일 / 요리사, 음식 칼럼니스트

6.9

### 지역 청년이 겪는 수도권 바깥에서 먹고 살기

양승훈 /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6.16

### 서울 공화국이나 균형발전이나

이정우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6.23

### ‘지방소멸’의 시간들

조문영 /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6.30

## 공연

Space111

### 연극 생추어리 시티 Sanctuary City

작. 마티나 마이옥(Martyna Majok) / 번역. 유은주 / 윤색. 유은주 이오진  
연출. 이오진 / 출연. 이주영 김의태 아마르볼드

4.22-5.10

### 연극 엔들링스 Endlings

작. 셀린 송(Celine Song) / 번역. 조은정 임지윤(PIC) / 연출. 이래은  
드라마터그. 김지혜 / 출연. 경지는 박옥출 백소정 양대은 이미라 이희 홍윤희

5.20-6.7

### 뮤지컬 광장시장

작. 윤미현 / 작곡·음악감독. 나실인 / 연출. 이소영  
출연. 강정임 박현철 송석근 윤현길 이지현 정대진

6.17-7.5

## 전시

두산갤러리

### Ringing Saga

참여작가. 구동희 Donghee Koo 김보경 Bokyung Kim  
안진선 Jinseon Ahn 이유성 Eusung Lee 홍이현숙 HongLee, Hyunsook

6.4-7.12

# 엔들링스 Endlings

by Celine Song





접근성 사항

한글자막해설

터치투어  
일부 회자

음성소개

휠체어석

안내보행

문자소통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시놉시스

남도의 작은 섬 ‘아일랜드오브만재’에는 세상의 마지막 해녀인 할머니 세 사람이 살고 있다. 하루 종일 물질하고 해변에서 수다 떨다 밤이 되면 텔레비를 켜두고 잠 못 드는 몸과 마음을 달랜다. 지구 반대편 ‘맨하탄섬’에도 잠 못 드는 누군가가 있다. 한국계 캐나다인 극작가 하영은 백인들로 가득한 미국 연극계에서 살아 남기 위해 분투 중이다.

어느 늦은 밤, 해녀 할머니들이 켜 둔 텔레비의 어두운 빛 속에서 하영이 유령처럼 나타난다. 하영은 다짜고짜 관객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

음성 안내



# 해외리뷰

“ 강력하고, 신선할 정도로 직설적이며 솔직하다. 놀라운 공연 ”

Celine Song takes a refreshingly direct and honest route.

- 케이프 코드 타임스 *Cape CoD Times*

“ <엔들링스>는 영리하게 스스로를 비틀며 농담을 던지며,  
동시에 그 안에 깊은 진지함을 간직하고 있다 ”

*Endlings* is clever and self-aware, in on its own joke, but it's also deeply serious.

- 뉴욕 스테이지 리뷰 *New York Stage Review*

“ <엔들링스>는 분노로 터져 나오는 외침이자,  
동시에 부드럽고 따뜻한 위로이기도 하다 ”

*Endlings* is both a burst of righteous anger and a gentle balm.

- 엑지언트 뉴욕 *Exeunt NYC*

“ 대담하고 과감한 연극이다

유쾌하면서도 몰입감 있게, 그리고 완전히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 ”

A daring and audacious new play by Celine Song...[fancies] to make their stories delightful, and wholly original.

- 디크보스턴 *DigBoston*

## 작 셀린 송 Celine Song

---

연극 <Endlings><Tom & Eliza><Family> 외  
영화 <Materialists><Past Lives>

### 수상

2024 미국 아카데미상 작품상, 각본상 후보 <Past Lives>  
2024 필름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 최우수 장편영화상, 감독상 <Past Lives>  
2024 미국감독조합 신인감독상 <Past Lives>  
2023 고담 어워드 최우수 작품상 <Past Lives> 외

# Location, Location, Location

셀린 송 Celine Song  
2019년 2월 27일

번역. 조은정 임지윤(PIC)

2016년에 있었던 극작가 에드워드 올비의 추도식 인파에 섞여, 브로드웨이 무대 위에서 그의 명망 있는 친구들의 애정 넘치는 헌사를 들으며, 난 흐느꼈다. 극작가로서의 내 커리어는 2012년, 극작가 장학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머물렀던 에드워드 소유의 몬토크의 오두막에 시작했다. 거기에서 난 에드워드를 만났다. 내 백인 남편도.

에드워드가 죽은 지금, 한 세계가 그와 함께 죽어가는 기분이었다: 위대한 백인 극작가뿐 아니라 위대한 백인 연극도. 극장 안의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내 백인 남편도 느낄 수 있었고, 나도 느낄 수 있었다. 비통한 상실이였다.

에드워드가 사망한 그때, 나는 새 연극, <엔들링스>를 집필 중이었다. 해녀라는 대한민국의 나이든 여성 잠수부들에 대한 연극이었다. 해녀는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었지만, 이들의 생활 방식을 이어받은 여자들이 없어 곧 멸종될 것이다. 에드워드처럼, 현재 남은 해녀들이 죽으면 한 세계가 그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1천 년이 넘는 전통이 급작스레 멈추게 될 것이다.

타임스퀘어 한가운데 있는 이 멋진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있었던 추도식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백인 연극계 인사들에 둘러싸여 주변을 둘러보며 나는 울었고, 삶뿐 아니라 죽음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능성이 부동산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생각했다. 추모 받을 때조차 우리는 입지, 입지, 입지의 희생자들이다.

에드워드가 지금과 같은 사람이 된 건 학교를 중퇴하고 아방가르드 시대에 맞춰 뉴욕에 왔기 때문이었다. 내 할머니가 지금과 같은 사람이 된 건 그녀의 조국이 자의로 시작하지도 않은 전쟁에 의해 반토막나는 순간 휴전선을 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에드워드를 기리며 훌쩍이던 나는 이 안에 우리 할머니 같은 사람, 해녀는 아니지만 모든 역경을 헤치고 90년의 한국 역사 동안 살아남은 여성을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했다. 할머니와 에드워드 올비의 나이가 거의 같은데도 - 이들은 거의 똑같은 시기에 지구 정반대편에서 태어났다- 내가 두 사람을 동년배라 인식해본 적이 없다는 게 웃기단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은 언어의 세계, 역사의 세계, 부동산의 세계에 의해 분리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우주에 속해 있었다. 둘이 한 방에 같이 있는 모습 -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나이 들어가는 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을 그려보는 게 터무니없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난 그저 존재함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난 에드워드를 애도하고 할머니를 생각하며, 일견 역사가 할머니에게 영영 허락하지 않았던 듯 보였던 공간으로 할머니를 몰래 데려온 것이다. 내 삶을 사는 것만으로, 나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난 살짝 마법을 부린 것이다. 전에는 이때처럼 어느 공간 내 유일한 동양인이라는 게 소외감이나 열등감을 자아냈던 반면 지금은 내가 한없이 강하다는 기분이 들었다: 난 시공간의 구조를 뜯어 열어젖히며 두 우주를 충돌시키고 있었다.

난 인생에서 두 번 이민을 경험했다: 12살 때 서울에서 토론토로, 23살 때 토론토에서 뉴욕으로. 난 영어로 글을 쓰고, 이름을 하영에서 셸린으로 바꿨다. 자랄 때 난 내 억양과 영어 문법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다는 점에 불안감을 느꼈다. 오랫동안 누군가 나를 동양인이라고 묘사하면 그게 나임에도 모욕감을 느꼈다 - 누구도 그걸 알아채길 원치 않았기에. 서구 매체에는 진짜 동양인의 재현이 극도로 드물었던 탓에 동양인의 몸을 보는 비 동양인의 시선은 혐오와 불완전한 정보가 초래한 전형들로 가득하다. 나는 나를 둘러싼 세상이 내가 동양인인 걸 잊길 바랐다. 알아보는 것 자체로 너무 큰 상처였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못생기고 사랑받지 못하고 무력하게 느끼게 했다. 그래서 나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예술가로서 백인성과 가부장제를 지지했다. 난 ‘백인 희곡’을 썼다, 에드워드 올비 같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종류의 글을.

<엔들링스>는 세 명의 나이든 동양인 여성을 주연으로 하는 많은 배우들이 등장하는 연극으로 엄청난 독백과 (말 그대로 바다를 포함한) 다양한 세트가 등장한다. 난 연극에 나 자신마저 인물로 등장시켰다. 공간을 차지하고, 주도권을 쥐고, 나만의 언어로 이야기하며,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할머니의 손녀를 연기하는 나를.

<엔들링스>는 이 작품이 어떻게 제작될지 또는 내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고 쓴 첫 희곡이다. 또한 예술 감독이나 리터러리 매니저가 뭐라 할지 상관하지 말라고 가르쳐준 작품이다. 내가 입력했을 때 기분 좋아질 단어들만 생각하게 알려준 작품이기도 하다: 언니(그야말로 ‘손위 자매’, 여성들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상대를 다정하게 부르는 표현), 할머니, 우리 이쁜이(내 귀여운 사람).

이 연극은 내 정체성만큼이나 특이하고 다양하다. 난 한국인이지만 내 연극 속 해녀들만큼 한국인으로 느끼진 않는다. 그렇다고 완전히 캐나다인이거나 미국인으로 느끼지도 않는다. 사실 난 그 둘 다이기도 한데 말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읽거나 발음하는지도 모르는 것들이다: 간장게장과 갈비찜. 난 토론토의 가족들과 화투(한국식 카드 게임)를 치고, 그들의 언쟁을 백인 남편에게 통역해준다. 난 팀홀튼의 아이스 카푸치노와 부모님이 가게를 하시던 중국인이 운영하는 몰의 버블티를 함께 마시며 자랐다. 난 한국 TV를 보고 미국 TV의 각본을 쓴다. 나의 정체성은 헬러윈 코스튬, 벽에 걸린 그림, 휴가 사진, 메뉴 속 항목, 대상화된 육체가 될 수 없다. 내 정체성은 내가 나의 온전한 작가로, 나만의 언어로 나만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이다.

미국은 미국적이라는 개념을 이민자들이 바꿀 거라 두려워하는데 사실 우린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린 항상 그래왔다. 우리 이민자들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권력 구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트랜스포머들이니까. 우리는 변신한다. 우리는 신이고, 동물이며 불가항력이다. 우린 에드워드 올비와 내 할머니를 한 방에 넣고 작은 테이블에 같이 앉게 한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막을 수 없다. 이미 일어나버린 일이거든. 난 그저 존재하기만 했을 뿐.

이 연극은 내게 가장 소중하다. 내게 그저 나로서 존재하는 법을 알려줬으니까. 이 연극은 내게 나 자신이 되는 지혜를 줬다.

---

\* 2019년 아메리칸 레퍼토리 극장 초연 당시 A.R.T. 가이드에 수록된 글입니다.





## 연출 이래은

달과아이 작·연출가

### 연극

<이것은 사랑이야기가 아니다><우리는 적당히 가까워><서울 도심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한다><초록빛 목소리><고양이가 말했어> 외

### 수상

2022 제59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연출상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2006 제15회 서울어린이연극상 최우수작품상, 연출상, 연기상 <고양이가 말했어>

최근, 제주 지역 여성의 유전적 변이에 관한 해외 연구 보고가 발표됐다. 저체온증에 덜 취약하게 만드는 추위 내성 변이와 이완기 혈압 감소와 관련된 변이를 가진 모계 변이 유전자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해녀의 모계 유전자 변이라니! 유전자 변이하면 바로 마블의 ‘영웅’들이 떠오른다. 남들과 다르다는 것에 고통스러워 하다 자신의 다름이 슈퍼파워임을 깨닫고서 세상을 구하고 악당과 싸우는 ‘영웅’들. 다수와는 다른 소수자성의 힘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 지, 영웅담을 좋아하는 이들은 잘 알고 있다.

이 연극은 작가의 영웅 해녀 할머니들 ‘엔들링스’와, 남들과 다름에 고통받던 이민자 작가의 영웅담이다.

처음 대본에는 하영의 이민사가 있었다. 하영의 모계로 내려온 한국 여성들의 이주와 이민의 역사가 해녀 할머니 세 사람과 이어지고 얽히며 희곡을 직조하고 있었다. 이 대본이 한국 관객과 만나기 위해선 로컬라이징과 더불어 한 사람안에 교차하는 복잡한 지역성과 언어감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했기에 이민사의 복원 그리고 대본의 로컬라이징과 영어원문사용 허락을 구하는 메일을 작가에게 보냈다. 등장인물들의 각

지역 사투리, 영어 원문을 사용한 바이링귄 발화방식, 텍스트 퍼포먼스 등 다층적 언어감각을 공연에 담아내기 위한 준비의 목적과 방향, 근거를 정리했다. 동료들과 꼬박 3개월을 작업했지만 불허의 답이 돌아왔다.

‘왜’라는 질문을 되뇌다 멈추고 작가의 신발을 신어 보기로 했다. 작가의 글을 읽고 또 읽었다. “이 연극은 내게 가장 소중하다. 내게 그저 나로서 존재하는 법을 알려줬으니까. 내게 나 자신이 되는 지혜를 줬다.”

한국 관객과 이 희곡을 닿게 하려 했던 한국 예술가들의 시도가 작가에게는 ‘나로서 존재하는 법’을 알려 준 <엔들링스>의 세계를 흔들고 침입하는 행위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민자가 아니다. 내가 사는 이 곳에서 국적과 인종 때문에 차별, 혐오나 배제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나는 모국어인 한국어로 소통하며 살아간다. 한국어를 못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거나 무시 받고 배제되고 혹은 가여움(때론 귀여움)이나 시혜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 나는 20대가 아니다. 스스로를 증명해 내고 사회와



타인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하며  
'어려서 잘 모른다'며 내 선택이 폄훼되거나  
젊음의 낭만으로 고통이 포장되는 일도  
없다. 나는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뉴욕에 사는 젊은 이민자 극작가가 다큐  
속에서 본 해녀들과 자신을 잇는 희곡이  
얼마나 작가의 생존에 절박했는지를, 지금도  
여전히 그런 지를. 타인의 고통을 모르는  
상태, 사회는 이것을 특권이라고 부른다.

개인이 경험하는 억압과 특권은 교차하고  
중첩되며 상호작용한다. 모순처럼 부딪히며  
혼돈과 불안 속에서 역동한다. 작가의  
영웅들 '엔들링스'와 주인공 하영의 모습이  
꼭 그렇다. 이 공연을 만들고 있는 동료들과  
나 또한 그렇다. 아마도 이 공연의 관객  
여러분 또한 객석에서 그럴 것이다. 이  
희곡은 사유의 틈을 주지 않는다. 생존의  
감각이 잔뜩 켜진 이가 존재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순의  
중첩 속에서 외치고 있다, 그냥 존재하게  
해달라고. 이 고통의 외침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다. 어떻게 응답할까 생각하다  
그냥 곁에 머물기로 했다. 작가에게는 없는  
특권,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 국적을 가진  
이의 특권과 나만의 소수자성 슈퍼파워를  
 발휘해 힘을 내어 고통의 곁에 머물러  
보기로 했다. 관객 여러분도 객석에서  
자신의 슈퍼파워와 특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를 위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그 힘으로 서로의 곁에 오래 머물 수  
있기를 바라며 연극 <엔들링스>를 하루하루  
만들어간다.

여행을 다녀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도 모르게 드는 “아, 집이다.” (“Home sweet home”) 라는 이완의 감각이 있다. 몸을 풀어지게 하는 익숙한 집의 냄새, 눈을 편안하게 해 주는 익숙한 방의 구조, 이 모든 것들이 몸의 긴장을 풀며 편안하게 하는 안도와 안전의 감각을 이룬다.

반면, 서구권, 특히 미국을 여행해 본 적이 있는 이들은 국경을 넘을 때의 긴장감을 몸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라고 부르는 미국의 입국심사는 비자를 소유한 채 국경을 넘는 모든 이들을 취조하듯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방문목적에 합당한 비자와 서류를 구비해 입국심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잠재적 트러블메이커로 나를 보는 눈앞에서는 온몸의 털이 서고 목과 어깨에 긴장이 스며든다. 이 긴장의 감각은 날카로운 몸의 기억으로 남아 낯선 공항의 공기를 맡는 것으로도 내 몸을 방어적으로 바꾼다.

한 번 나고 자란 곳을 떠나면 우리는 모두 이민자가 된다. 이사를 간 첫 날, 침대에 누워 바라본 천장이 낯설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이사, 전학, 상경, 입학, 입대, 이직, 유학, 이민 등등 이주의 형태는 다양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민 경험을 갖고 있다. 다만, 한 때 낯설다고 느꼈던 천장이 어느 날부터 눈에 익어가기 시작하기에,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다면 이민의 감각은 무뎌지기 마련이다. 언어권, 문화권, 그리고 인종적 다양성이 다른 곳으로

도하(crossing)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다.

인종, 언어, 문화 등의 다양성이 교차적으로 섞인 미국은 이민자가 세운 나라이자 아이러니하게도 낯선 이민의 감각을 평생 느끼며 살게 되는 곳이다. 외국인인 뜻하는 영어 foreigner에서 foreign은 낯설다는 뜻이다. 직관적으로 외국인이란 낯선 이를 지칭하는 말이다. 딱히 모국어를 닮은 악센트가 없어도, 아무리 많은 세월을 그곳에서 살아왔어도, 유색인종(people of color)으로서 숨길 수도 지울 수도 없는 ‘낯선 이’로 내 피부색이 인지되는 경우들이 있다. ‘나’라는 독립된 개체가 아닌 내 피부색이 먼저 인지되는 순간, 응당 이완되어야 할 안전한 공간에서 낯선 긴장감을 느낀 침범과 배반의 순간,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과 질문이 든다.

*하영: 가끔 자문하곤 해요. 난 여기 왜 살지? 이 좁아터진 원룸 아파트에서 내 남편이랑? 20대도 다 저물어 가는데? 고장 안 난 싱크대 하나, 변기 하나, 가스렌지 하나에, 세탁기도 없고, 중앙 냉난방도 안 되고, 불박이장도 없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라곤 죄다 다른 건물 벽이고, 부엌엔 쥐가 나오는 이 공간에 감지덕지 하면서, 내가 정신이 나간 건가? 자기 혐오인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나?*

<엔들링스> 속 하영은 작가 셸린 송의 한국 이름을 딴 동명의 인물이다. 작가 스스로를 인물화 하여 극 속에 넣는 것은 관객으로

하영금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질문하게 하는 장치로, 진실(truth)은 현실과 허구라는 이분법 너머 그 어딘가(beyond)에 있음을 함의하는 극적 구조다. 극 속 하영이 일반적인 리얼리즘(realism) 공연에서 관객과 인물 사이에 존재하는 제4의 벽을 깨고 관객들에게 직접 거는 말들을 듣다 보면, 어느새 열두 살에 캐나다로 이민을 간 영화 감독 송능한의 딸 셀린 송, 즉 송하영과 <엔들링스> 속 하영이 동일 인물일지 생각하게 된다.

실제로 작가 셀린 송은 한국에서 캐나다로, 캐나다에서 미국 맨해튼으로 두 번의 큰 이민을 거친 동양인 여성 이민자다. 캐나다로 향한 한 번의 도하는 타의로, 맨해튼으로 향한 다른 한 번의 도하는 자의로 행해졌다.

*하영: 이 모든 걸 위해 저도 대가를 치렀죠. 여기 서기 위해 태평양을 건넜어요. 어떤 도하는 다른 도하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고, 어떤 도하를 위해선 온 인생을 바쳐야 할 때도 있어요.*

하영에게 있어 맨해튼으로 향한 자발적 도하의 직관적 목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 성공의 욕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백인 연극으로 가득 찬, 뉴욕 연극계로 대변되는 미국의 주류 연극계에서 본인의 이름이 새겨진 작품으로 입신양명하며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과정은 고되기에 서로 상충하고 충돌하는 현재의 욕망들로 하영의 마음속은 시끄럽다.

*하영: 한 점 부동산을 위해 연극을 위해 내 피부색을 팔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난 백인 연극을 써요. 수년간 백인 연극을 써왔죠.*

...

*하영: 난 연극을 위해 내 피부색을 팔고 싶어. 한 점 부동산을 위해 내 피부색을 팔고 싶어. 세상에, 난 원해. 그걸 너무 원해... 맏소사, 난 그걸 원해. 이기고 싶어.*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도 하영이 도하를 한 궁극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작가 스스로를 인물로 극 속에 넣으면서까지 찾고 싶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국경을 넘는 종류의 이민을 추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부분 어떤 종류의 정착을 목적으로 이민을 계획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나 실질적 이민은 정착보다는 정박에 가까운 양상을 띤다. 한시적으로 닻을 내리고 언젠가 될지 모르는 시기까지 머물며 자리를 잡아보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모여 하나의 이민사를 이룬다. 이민자들에게 있어 정착은 환상에 가까운 추상적 목표로 이민 여정의 기폭제로 사용되곤 한다. 그러다 운이 좋다면, 무수히 반복되는 정박 여정 중 이 이민이, 이 작지 않은 도하가 지금의 나에게 의미하는 바를 깨닫는 순간이 잠시 찾아온다.

*하영: 그러다 기억하죠. 그게, 내가 여기 사는 건. 이 희곡을 쓰기 위해서인 거 같다고. 이 희곡을 쓰기 위해. 세 나이 든 여자가 서서히 죽어가는 이런 연극을 쓰기 위해서.*

전작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배해를 작)과 <이것은 사랑이야기가 아니다>(도은 작)에서도 찾을 수 있는 연출가 이래은의 특징은 각 작품에 맞는 연기 양식을 고안해 낸다는 것이다. 이번 <엔들링스>에서 이래은은 양식화된 발화와 시트콤식 배경 음악 사용을 통해 관객들에게 낯선 이민의 감각을 환기한다.

막이 올라오고, 조명은 평생을 만재도에서 산 세 해녀 할머니들을 비춘다. 극장에 명령같이 서려 있는 리얼리즘으로 고민, 한술, 순자가 나누는 대화를 ‘진짜’ 만재도 해녀들의 대화라고 믿으려는 찰나, 고민이 고개를 어깨 쪽으로 비스듬히 내린 채, 비음을 잔뜩 머금은 신파의 정서로 소리친다.

*고민: 제발 가. 너힐 뱃속에 품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켰던 나를 어미로  
존경한다면, 씨알 만큼이라도 존중한다면,  
나한테서 멀리 떠나.*

돌같이 우두커니 바다를 보며 앉아 있던 한술이 턱을 내리고 잔뜩 힘 준 어깨를 살짝 틀며 정치 서스펜스 드라마의 중년 남성 회장님처럼 낮고 진중한 톤으로 받아 친다.

*한술: 무슨 얘기가.*

순간 눈 앞에 펼쳐진 아침 막장 드라마는 밤 10시대의 정치 서스펜스 시리즈물로 전환된다. 이후 세 해녀의 이야기는 자기계발 특강 중인 일타 강사, 사극 속 영의정, ‘아침마당’에 출연한 이유 없이 훈훈한 정서를 내뿜는 일반인들, 그리고 ‘인간극장’ 속 인생의 드라마틱한 순간을 맞이한 불운한 개인 등등을 소환하며 관객이 하영을 직접 만나는 순간까지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유령 같은 모습으로 관객 앞에 나타나는 하영, 그 순간 극은 모든 양식을 내려두고 하영과 관객의 관계 맺기에 집중한다.

여러 장르를 암시하며 빠르게 그 사이를 넘나들기 위해 이래은은 ‘SNL’과 같은 시트콤식 배경음악 사용을 마다하지 않는다.

SNS 속 숏폼의 리듬을 띤 이래은식 ‘낮설게 하기’는 관객으로 하여금 한술, 고민, 순자가 극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하영이 창조한 가상의 인물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동시에 이러한 양식은 소환된 다양한 요소들이 지닌 전형성에 대한 날카롭고 재치 있는 의문들을 관객들에게 잔상같이 남긴다.

<엔들링스> 속 시도 때도 없이 분출하는 양식의 리듬은 이민자들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낮선 감각의 패턴과 닮아 있다. 이렇게 이래은의 <엔들링스>는 감각의 전이를 통해 관객을 한시적 이민자로 만든다.

*하영: 이런 무대를 보는 건 이민자가 되는 것과 아주 비슷해요. 이민자가 되는 느낌이 이렇죠. 전혀 새로운 세계로 넘어오는 거. 이 공연을 보려고 표를 사고 전철이나 택시를 타고 여기 왔죠. 여기 오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른 거예요. 만재도라는 작은 섬으로 넘어와 이 나이트 여성들과 몇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도 일종의 이민자가 된 거죠.*

낮섬이 나를 둘러쌀 때, 생존 감각은 본능적으로 올라온다. 문득 나를 둘러싼 소유주가 낮설게 느껴질 때, 대답할 수 없는 실존적 질문들이 혼란하게 산재할 때, 내 안에 부정하고 싶을 정도의 강한 힘과 운동성을 지닌 이 생존 감각도 공존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sup>1)</sup>.

---

1. 드라마터그 김지혜 또한 동양인 여성 이민자로 미국 중서부 여러 도시에서 10여 년을 살았다. 언어적·문화적으로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 현재 서울에 살고 있지만, 늘 마음속 하나 이상의 고향을 품고 있다.

# 엔들링스: 변하는 지역과 커커이 쌓이는 정체성의 이야기

신혜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엔들링(endling)’은 멸종 직전의 “마지막 한 개체”, 즉 최후의 생존자를 뜻한다. 연극 <엔들링스 Endlings>는 서로 매우 다른 두 섬의 생존자 이야기를 통해 그 지역을 바라본다. 하나는 한국에서 뱃길로 가장 먼 섬인 전라남도 만재도, 다른 하나는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미국 맨해튼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점점 이동과 이주가 활발해지고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만재도에서는 70대부터 90대의 세 해녀가 여전히 물질을 이어간다. 맨해튼에서는 한국, 캐나다, 미국을 거쳐 온 젊은 여성 하영이 이방인으로서 주류 사회를 관찰한다. 이 두 세계에서 인물들은 물속과 육지, 고향과 이주지, 전통과 자아 사이를 오가며 살아간다.

둘 다 정체성의 꼬트머리에 서 있다. 무대 위 인물들은 영토와 문화가 사라질 때 무엇이 함께 사라지는지를 묻는다. 전혀 다른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서사는 공통된 질문을 던진다. 지역이 변하면 우리의 정체성도 변할까? 우리는 어떤 지역을 떠났어도 여전히 그 지역의 일부일까? 지역이 사라질 때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

지역이 변하면 우리의 정체성도 변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체’가 아니라 ‘증식’과 ‘새로운 결합’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지역에서의 경험이 과거의 나 위에 층층이 쌓인다.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혹은 내가 사는 지역이 변화할 때,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온다. 새로운 사회에 던져진 개인은 자신이 지녀온 것들이 거부당하는 경험을 한다. 자신의 언어, 상식, 습관이 사소한 것으로 취급되거나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변한다. 1990년대 이전, 동화(assimilation)의 압력이 강하던 시절에는 하루빨리 도착지 주류가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 방식을 익히는 것이 이방인이 살아남는 길로 여겨졌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정체성은 쉽게 버려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덧칠하듯 쌓인다. 개인이 이동하지 않고 지역이 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지역이 추가될 때마다 우리는 ‘동화’가 아니라 ‘축적’을 경험한다. 이것이 1990년대 초국적주의(transnationalism) 관점이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다. 학자들의 관찰 결론도 마찬가지였다. 과거의 언어, 음식, 몸의 감각과 기억들은 버리려 해도 사라지지 않고 층층이 쌓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수용 사회도 이민자의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정체성은 단일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다. 내 안에는 수많은 ‘나’가 존재한다. 특히 변화를 겪는 사람에게는 이 정체성의 입체성이 더욱 크다. 연극 <엔들링스> 속 세 명의 해녀가 자신의 삶, 일상, 물질에 대해 나누는 대화와 하영이 한국에 대해 말하는 장면들에는 양가감정이 가득하다. 과거의 나에 대한 애정과 냉소, 옛 지역에 대한 집착과 체념, 자신은 알지만 바깥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적응과 분노가 뒤섞여 있다.

정체성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경험과 특성을 선택하고 선별하여 기억하고, 이는 우리 몸과 마음을 통해 드러난다. 그렇게 드러나는 조각들이 나와 타인이 이해하는 ‘나’의 정체성이다. 여기서 기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흔히 드라마에서 기억을 잃은 주인공이 자신이 누구인지 극심한 혼란을 겪는 장면을 보면, 정체성과 기억이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 기억은 극히 선택적이라, 같은 사건을 보아도 각자가 기억하는 것은 다르고, 나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 경험을 다르게 기억한다. 기억은 과거에 관한 것이지만, 현재의 내가 미래를 위해 재구성하는 것이다.

정체성은 또한 몸에 새겨진, 육화된 경험 위에 서 있다. 기억을 잃어도 자신이 능숙하게 구사하는 언어, 운전능력, 몸짓과 선호는 남아 있는 것과 같다. 어떤 지역을 떠난 뒤에도 몸은 기억을 통해, 언어는 억양을 통해, 그 곳에서의 삶은 불편한 향수로 남는다.

우리는 새로운 곳에서 다른 이름을 얻고, 다른 방식을 배우고, 다른 기억을 만들어 나가지만, 새로운 지역은 기존의 나를 초기화시키지 못한다. 이전 지역에서

만들어진 정체성과 경험은 삭제되지 않는다. 마치 오래된 지도 위에 새로운 경로를 덧그려 넣는 것처럼, 우리는 덧칠하고 확장해 나간다. 길은 계속 이어지고, 과거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은 채, 새로운 방향성과 궤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변화한다.

지역은 떠난 사람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생존한다. 그 지역과의 연결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몸과 감각, 기억의 층위 안에서 다른 형태로 살아남는다. 몸은 기억하기 때문이다. 특정한 건는 습관, 음식 냄새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계절의 변화에 대한 체온 감각은 지역을 떠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쓰던 언어의 억양, 속도, 표현 방식은 새로운 언어를 배워도 종종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다. 삶은 불편한 향수를 품는다. 떠난 지역을 완전히 이상화하지도, 완전히 부정하지도 못한 채, 애매하고 복합적인 감정들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작동한다.

이렇게 지역은 물리적 위치로부터 떨어진 후에도 몸과 감정의 층위에서 ‘기억된 지역’으로서 존재를 이어간다. 우리가 지역을 떠난 것이 아니라, 지역이 우리 안에 다른 형태로 머무르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주는 우리 몸을 통해 그 영토를 확장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 이상의 영토가 존재하게 된다.

지역이 사라질 때, 우리는 무엇을 잃을까? 가장 큰 상실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를 잃는 것이 아니다. 진짜로 잃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기억을 하나로 꿰어 주던 서사의 틀(narrative frame)이다. 장소의 물리적 풍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험을 서사로 엮어 주는 틀’이다. 그 틀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조각난 기억이다. 해녀들이

잠수복을 벗고 육지로 올라왔을 때 느끼는 공허함이 바로 그것이다. 지역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고, 어떤 감정을 품었는지를 연결하고 설명해 주는 실질적인 틀이다. 이 틀을 잃게 되면 개인의 기억과 정체성도 파편화된다. 서사가 끊기면, 남는 것은 조각난 기억뿐이다. 삶을 구성하던 문맥이 사라지고, 사건들은 서로 연결되지 못한 채 부유하게 된다.

우리는 과거를 늘 다시 쓴다. 자신의 지역이라고 해서 늘 소속감을 느끼며 편안했던 것도 아니고, 이주지에서의 적응 정도도 각기 다르다. 이주한 곳에서 열심히 적응하며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 시간이 흐른 후 자신이 겪었던 차별에 새삼스럽게 분노하기도 한다. 반대로 이주한 곳에서 늘 괴로워하던 사람이, 막상 떠난 뒤에는 그곳을 그리워하기도 한다. 우리의 매일도 이와 비슷하다. 해녀들이 매일 바다에 들어가면서 느끼는 공포와 익숙함, 익숙함 속의 새삼스러운 두려움처럼, 하영의 매일의 삶과 일, 그리고 우리가 매일을 대하는 감정 역시 복합적이다.

지역도 늘 변한다. 만재도와 한국 이주민의 상황도 변했다. 2017년, 해녀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이후 새롭게 해녀가 되려는 이들의 수도 증가했다. 만재도는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 어촌편> 촬영지로 대중적인 관심을 받았고, 2019년에는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되어 육지와 일일 생활권이 되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과 한류의 존재감은 더욱 커졌다. 이제 한국인 이주민들은 “한국이 어디냐”고 묻는 질문 대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 “한국 음식을 먹어봤다”는 반응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되었다.

몸과 기억의 층위에 켜켜이 쌓인 내 모습처럼, 나의 서사도 매일 새롭게 구성된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는지 고민할 겨를은 없지만, 때때로 다층적으로 쌓인 정체성 사이에서 여전히 움켜쥐게 되는 질문들이 찾아온다. 나는 어느 섬 끄트머리에 서 있는가? 우리 지역과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여전하면서도 어떻게 새로워지고 있을까?

---

#### 신혜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도시계획학과 박사(Uni. of Southern California), 런던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계획학과 교수로 8년 재직 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로 있다. 심층인터뷰, 참여관찰 연구방법으로 정치지리, 도시정치, 이주 주제를 연구한다. 대표적 저서로 『우리는 모두 조선족이다』, 『누가 도시를 통치하는가』, 『The Cultural Politics of Urban Development in South Korea』가 있다.



“이 연극은 내게 가장 소중한데, 내게 그저  
나로서 존재하는 법을 알려줬으니깐. 이  
연극은 내게 나 자신이 되는 지혜를 줬다.”  
(셀린 송)

셀린 송 감독의 자전적 장편 극영화 <패스트  
라이브즈>(2023) 속 등장인물 나영은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 서울에서 토론토로  
이주한다. 그 과정에서 단짝이자 첫사랑인  
해성과 갑작스러운 헤어짐을 경험하게  
된다. 둘은 제대로 된 작별의 의식조차  
갖지 못한다. 그로부터 2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토론토를 거쳐 뉴욕에  
정착한 나영을 만나기 위해 해성은 기꺼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항공편에 오른다.  
마침내 옛 친구와의 감격적인 재회. 그리고  
이스트빌리지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나영은 남편 아서에게 묘한 말을 흘린다.  
어쩐지 자신이 그다지 한국인 같지 않게  
느껴진다고. 뉴욕에서 마주치곤 하는  
한국계 미국인(Korean American)  
친구들과는 다르게 해성이야말로 “진짜  
한국인”(Korean Korean) 같았다고.

우리는 나영 그리고/혹은 셀린 송을 간단히  
‘이민자’ 또는 ‘이주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어쩐지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보고 싶은 충동이 자꾸만  
고개를 들이민다. 그것은 그녀가 다른 아닌  
이민 1.5세대에 속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민 1세대인 부모가 새로이 정착한 땅에서  
태어난 이들을 우리는 2세대라고 부른다.

그들과는 달리 미성년의 나이에 이민을  
경험한 1.5세대는 아직 본국(本國)의  
문화가 온전히 뿌리를 내리기 이전 시점에,  
또다시, 완전히 낯설고 다른 이민국의  
언어 및 문화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일견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결정적인 차이로  
다가온다. 12살 때 서울에서 토론토로,  
그리고 23살 때 토론토를 떠나 뉴욕에  
정착한 한국계 캐나다인 나영/셀린. 그녀는  
스스로 온전한 한국계 북미인으로도, 진짜  
한국인(Korean Korean)으로도 인식하는  
데 불편함을 느낀다. 그렇다고 그녀가  
자신을 정확히 어떤 존재라 적극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후 아이  
엠’(who I am)이 아닌 ‘후 아이  
몹’(who I’m not)의 소극적 방식으로써만 자신의  
정체성을 가까스로 붙잡을 수 있을 뿐이다.  
차리리 그가 이민 2세대였다더라면 자신을  
한국계 북미인으로 받아들이는 데 보다  
수월하지 않았을까. 나영/셀린의 자리는  
어디일까. 서울? 토론토? 아니면 뉴욕?

2025년 두산인문극장 프로그램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어는 ‘지역(local)’이다.  
그것의 문제의식을 구체화한 캐치프레이즈  
문장은 다음과 같다. “당신의 지역은  
어디인가요?” 이를테면 “당신이 태어나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와 같은  
방식으로 묻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로컬’과 ‘네이티브(native)’가  
동언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꽤나 자주 간과하곤 한다. 로컬은 원주민(네이티브)의 전유물이 아니다. 아니, 그러기는 커녕,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서로 얽히고 교차하여 만들어내는 공동의 장소, 그것이 말의 가장 바른 의미에서 ‘로컬’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셸린 송의 극작 <엔들링스>의 세계로 들어가는 주요한 열쇠 하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한국에서 초연되는 <엔들링스>를 통해 우리는 창작자로서 셸린 송의 첫출발이 영화가 아니라 연극이었음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다만 한국의 관객들이 연극에 앞서 그녀의 영화를 먼저 접했을 뿐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작가로서 그녀의 본령이 연극과 영화 둘 중 어느 쪽에 있는가 하는 문제는 지극히 부차적인 문제로 보인다. <엔들링스> 이후 <패스트 라이브즈>가 공개되었을 때, 서구의 관객들이 왜 이번에는 연극이 아닌 영화를 택했는지 묻자 그녀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한 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시공간에 그 거리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화로 만들어야 했다.” 과연 <패스트 라이브즈>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무엇이었던가 가만히 떠올려 보면 수궁이 가는 대목이다. 나영과 해성이 노트북 영상 통화로 화면 속 서로를 마주 보며 무한한 대화를 이어 나갈 때, 그들 각자의 상이한 시공간이 스크린 안에서 특유의 온기와 색감으로 빛을 발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서울과 뉴욕이라는 공간, 그리고 밤과 낮이라는 시간.

이처럼 로컬은 실제의 물리적 공간 안에 갇히거나 국한되지 않는다. <패스트 라이브즈>에서 나영/셸린의 뉴욕이 서울과 접속되어 확장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엔들링스>의 뉴욕은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 만재도와 연결된다.

<엔들링스>는 만재도에 살고 있는 세 명의 해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셋 모두 고령의 할머니들로 그 섬의 마지막 해녀들이다. 그들이 죽고 사라지면 해녀의 명맥은 끊기고 만다. “우린 엔들링(endling), 최후의 개체들이야.” ‘엔들링’은 한 종(種)의 마지막 개체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다.

미국의 관객들을 대상으로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져가는 한국 해녀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라는 점에서 <엔들링스>를 얼마간 의구심 섞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른다. 신비하고 이국적인 대상으로 해녀(로컬)의 이미지를 소비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움이 발동하기 때문이다. 원작자인 셸린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자신의 저작 의도를 철저하리만치 비판적인 태도로 점검한다. 그녀는 극 속에서 자신의 실제 한국 이름인 하영으로 등장하여 냉소적으로 읊조린다. “난 매수돼 이 희곡을 쓴 거야/ 백인들의 관심과/ 백인들의 부동산에 넘어간 거야/ 난 연극을 위해 내 피부색을 팔고 싶어/ 한 점 부동산을 위해 내 피부색을 팔고 싶어.” 하영과 마찬가지로 극작가인 백인 남편 또한 그녀를 향해 뼈 때리는 한마디를 날린다. “이런 건 절대 내가 못 쓸 거야.” 백인인 자신은 도저히 쓸 수 없는 부류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진부한 클리셰와 관련이 있다. 미국에서 소수인종으로 살아가는 창작자들은 백인 다수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자신의 진정성을 검열 받아야만 하는 위치로 내몰리곤 한다. 빈약한 예술적 완성도를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PC)으로 치장하는 그저 그런 정체성 서사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그들의 뒤를 늘상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소수인종 창작자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로부터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하게 된다. 급기야는 백인 다수자의 목소리를 마치 자신의 것으로 내뽐하 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버린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셸린은 고백한다.

*“나는 나를 둘러싼 세상이 내가 동양인인 걸 잊길 바랐다. 알아보는 것 자체로 너무 큰 상처였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못생기고 사랑받지 못하고 무력하게 느끼게 했다. 그래서 나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예술가로서 백인성과 가부장제를 지지했다. 난 ‘백인 희곡’을 썼다.”*

그러나 <엔들링스>를 기점으로 셸린은 자신의 작가적 커리어에 있어 결정적 차이를 내포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된다. 그 배경에는 어느 백인 극작가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가로놓여 있다.

2016년 셸린은 브로드웨이에서 열린 미국 극작가 에드워드 올비의 추도식에 참석하게 된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에드워드의 죽음과 더불어 위대한 백인 연극 시대의 종언을 운명적으로 예감한다. 때마침 만재도를 배경으로 나이 든 해녀 이야기를 집필 중이던 셸린은 추도식 현장에서 에드워드와 동년배의 나이인 할머니의 존재를 불현듯 떠올려낸다.

*“에드워드를 기리며 훌쩍이던 나는 이 안에*

*우리 할머니 같은 사람, 해녀는 아니지만 모든 역경을 헤치고 90년의 한국 역사 동안 살아남은 여성을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했다.”*

셸린은 자신의 할머니라는 존재를 경유하여 한때 ‘노란 피부에 하얀 가면’을 썼던 극작가로서 과거 자신의 모습과 작별한다. 하지만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백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함께 존재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함께 존재한다면요?”

---

#### 이종찬

비평적 에세이스트, 인천 디아스포라영화제 자문위원, 대학(원) 영문과에서 문예비평 및 문화이론을 공부하고, 비판적 문화연구 집단 ‘문화사회연구소’에서 활동했다. 경계의 사유로부터 촉발된 문학과 예술의 사회적 존재론에 매혹을 느낀다. 대표 저술로 「디아스포라와 죽음」(《릿터》 46호; 2024)이 있고, 『서경식 다시 읽기』(연립서가, 2022) 등을 함께 썼다.

## 1. 언어라는 지역, 인물이라는 섬

<엔들링스>의 윤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지점은 '2025년, 한국 관객들에게 언어를 통해 이민의 감각을 전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였습니다. 언어는 한 사람이 살아온 삶과 지역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엔들링스> 역시 각각의 인물이 가진 고유한 언어와, 그 언어들을 병치시키는 작업을 통해 인물들의 삶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엔들링스>에는 다양한 말들이 나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에 묻히지 않도록 짧고 굵어진 섬의 말.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해녀들의 경제적이고 직설적인 말. 소수자성을 전사와 판매의 대상으로 포장하느라 몸집을 부풀린 말. 살아남고 싶다는 외침으로 번역해야 하는 이민자의 말. 이러한 말들을 맥락과 뉘앙스까지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말이 반영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색 작업은 영어-한국 표준어-전라남도 방언을 넘나들며 진행되었습니다. 1월과 2월에는 매주 윤색 회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언어의 고유성에 주목했습니다. 각 언어의 패턴과 정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윤색 포인트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쉽고 직관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것, 2. 미국 문화에 기반한 코미디를 한국 문화로 로컬라이징할 것, 3. 지역적·사회적·직업적 특수성을 반영한 표현을 사용할

것, 4. 원문의 리듬을 살리기 위해 한시의 '운(韻)'과 힙합의 '라임(Rhyme)'을 참고할 것. 이렇게 총 네 가지 지점이 <엔들링스>의 윤색 포인트였습니다.

서브텍스트(Subtext)를 풀어내는 것과 뜻을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지역을 담아내는 윤색은 <엔들링스>의 인물 구축에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통해 인물의 독특함과 구체성을 돌출시키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성이 인물의 삶과 맞닿아 있기에, 궁극적으로는 삶을 이해하고 표현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언어가 창작진이 밭 디딜 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윤색에 임했습니다.

## 2. 헤매며-잇기

특이하게도 <엔들링스>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극작가 쉐린 송이 영어로 쓴 희곡을 다시 한국에서 공연하는 작품입니다.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한국어이면서 동시에 감각적으로는 영어인 대사들로 쓰여진 것 같았습니다. 윤색 작업은 이 대사들의 목적을 전달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한 줄씩 대사의 목적을 파악한 후, 그 뜻과 맥락을 자연스러운 구어체로 번역합니다. 번역된 구어체의 뉘앙스, 말맛, 리듬을 살릴 수 있도록 영어-한국 표준어-전라남도 방언을 쪽 늘어놓고 가장 적합한 표현을 탐색합니다. 1-2개의 대사 선택지를 만들어 원문-번역본-윤색 대본의 순서로 표기합니다.

이 과정은 자주 낯설고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섬을 허둥지둥 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동동 뜬 채로 바람이 불길 기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역될 말들을 정렬하려 애쓰는 것 같을 때마다 잠시 거리를 두고 회의의 기록들, 윤색 대본의 메모들을 바라봤습니다.

<엔들링스>의 윤색 작업은 이래은 연출, 김지혜 드라마터그, 김태령·이은채 조연출과 함께 했습니다. 손혜정 배우의 사투리 지도와 안담 작가, 김진아 연출의 코미디 워크숍을 통해 표현의 풍부함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꾸만 내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질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윤색 작업에서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 부동산이 없는 바닷속은 함께 해준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나는 말들로 섬과 섬 사이에 바다를 만들어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연습이 시작되면서 배우들과의 리딩 도중 영어 원문-번역본-윤색 대본을 오가느라 잠시 쉬거나 멈추는 순간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 때마다 ‘다음 대사에서는 어떤 언어를 선택할까?’라는 질문을 품고 기다리던 경험이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 유려한 읽기에 익숙해져 있던 감각이 ‘헤매며-잇기’의 감각으로 전환되던 시기를 기억해 봅니다. 잘 몰라서 두려운 것들을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바꿔보려던 연습을, 모두가 헤매는 궤적을 잘 겹쳐 길로 만들려던 시도를 기억해 봅니다.

만재도와 맨해튼을 잇기 위해 보낸 시간은 윤색 작가로서 겪었던 저 나름의 Little 꽤간한 immigration 이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헤매의 궤적을 바라보는 동안 저 역시 잠시 이민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꽤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익숙한 것에 균열을 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일을 해내려는 창작진들의 시도가, 섬과 삶을 잇고 싶었던 그 모든 과정이 이제는 인물들의 마음과 몸과 눈에 단단히 쌓여갈 것을 믿습니다.

### 3. 2025년 한국 관객을 기다리는 마음

<엔들링스>는 어떻게 헤매며 극장까지 왔는지 모를 이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겨울 내내 윤색한 작품입니다.

이 마음이 극장에서 관객분들의 감각으로 전환되어, 2025년 한국 관객의 Little 꽤간한 immigration 이민은 어떤 것인지 들려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이 앞으로 우리를 이민자 옆에 앉은 또 다른 이민자로 이어보려는 시도의 원동력일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 3.5 연습실로부터

연출부(김태령·이은채 조연출, 김지혜 드라마터그)는 윤색 대본이나 윤색 과정에서 나는 질문과 대화가 작품을 이해하고 인물을 세우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지 <엔들링스> 배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말이 지역이나 시간에 따라 고유한 특색과 변화의 흐름을 지니고 있어서 배우들은 나와 다른 세대, 지역, 성장 배경 등을 윤색 대본을 통해 적극적으로 호환하고 상상할 수 있었어요.”

“한 문장에서도 영어, 사투리, 번역체 등

다양한 언어가 있었고 앞에서 사용한 언어의 규칙과 배열을 반복적으로 활용해 작품에서 ‘말’이 곧 ‘생’으로 다가오는 중요한 궤를 짚는 역할을 해냈다고 생각해요. ‘이주’의 감각이라는 낯설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면서도 동시에 가깝고도 먼 태도를 상상할 수 있게 했다고 느껴요. 운색 대본을 활용한 과정이 배우들의 몸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작품이 지향하는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로 포옥- 지니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은 백인연극에서 반복적으로 발화되는 ‘백인’ ‘백색’ ‘하양계’라는 단어를 대한민국에서 파생할 수 있는 수많은 이미지의 단어로 수집해 주셨는데 각기 다른 하얀 질감과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어요. 페이지 뻑뻑하게 하양던 단어를 무대에 싣고 싶어요.”

“번역 대본만으로는 제 안에서 이 극이 뉴욕과 아일랜드오브만재를 오가는 교차의

지점이랄지, 중첩이랄지, 감각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꽤 많았었는데요. 운색 과정으로 인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대본을 받아들일게 됐어요. 감각적으로도 크게 도움을 받았는데요. 발화할 때 백인 남편과 하영 뿐 아니라 해녀들의 언어가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였던 과정은 그 인물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달라지게 했어요. 운색 과정이 없었다면 훨씬 멀게 느꼈을 거예요.”

“백인 남편이라는 인물이 극 중 언급되고 등장하는 백인들과 어떻게 미묘하게 다르고 또 닮았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특히 하영과 백인 남편이 생활에서 어떤 단어들 영어로 주고받는 것이 쌓이면서 생기는 친밀감이 있었고요. Great이나 I mean같은 표현이 인물의 토대를 세우는 중요한 축이 돼 주었어요.”



홍윤희  
한솔역

연극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목련풍선><즐거운 우리집><댄스 네이션>  
<얇은 경계><양갈래머리와 아이엠에프><장마><환희 물질 화상>  
<메리제인><가옥의 원><단지 세상의 끝><빌미>  
<광주리이고 가시네요 또> 외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디셈버><사춘기><나인><메노포즈>  
<지킬 앤 하이드> 외

영화

<전,란><큰엄마의 미친봉고><60일의 썸머> 외

수상

2023 제8회 임흥식배우상





**박옥출**  
고민역

**연극**

<멸망의 로맨스><심청전을 짓다><금조 이야기><시간의 난극>  
<키스><비온새 라이브><꽃가마><전화벨이 울린다><소녀>  
<머리를 내어놓아라><갈매기B><바나아저씨>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숙영낭자전을 읽다> 외

**드라마**

<정숙한 세일즈><아라문의 검><힙하게><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외

**영화**

<싱크홀><아이> 외

**수상**

2022 제43회 서울연극제 연기상 <심청전을 짓다>



# 이미라 순자역

## 연극

<로켓 캔디><기억들의 무덤><대리된 존엄><외국인들><댄스 네이션>  
<불안 속의 운동><나는, 거위><어딘가, 반짝><다섯 소년들>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외

## 음악극

<빨간풍선>

## 영화

<시바, 인생을 던져> 외

## 수상

2022 제30회 서울어린이연극상 연기상 <어딘가, 반짝>

2021 신춘문예 단막극전 연기상 <사탄동맹>



**백소정**  
하영역

연극

<유원><기억들의 무덤><맥베스><이것은 사랑이야기가 아니다>

<스고파라갈><sf식당><부유한 극장><여기, 한때, 가가>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외



## 이훈

백인 남편 ·  
백인 무대감독 역

### 시집

『양눈잡이』 『우리 너무 절박해지지 말아요』 외

### 시-산문집

『청년이 시를 믿게 하였다』

### 산문집

『고상하고 천박하게』 『눈에 덜 띄는』 『아무튼, 당근마켓』 외

### 전시

<Tell Them I Said Hello> <We Meet in the Past Tense>  
<Home Is Everywhere And Often Nowhere> 외

### 사진

『정확한 사랑의 실험』 『벨 자』 『끝내주는 인생』



**경지은**

백인 무대감독 역

연극

<연차대전><실수하고 살 수도><한 방울의 내가><새빨간 스피도>

<이것은 사랑이야기가 아니다><쿨링 다운><즐거운 너의 집>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 외

무용

<Social Sensorial Collectiveness>



**양대은**

백인 무대감독 역

연극

<고구마동동><김치찌개 웨스턴: 밥주걱과 45구경 권총의 결투>

<포비아 포비아><타임스퀘어><대리된 존엄><물고기로 죽기>

<스고파라갈><어디로 갈지 모><톡> 외











## 만재도

극 중 만재도와 해녀 한솔, 고민, 순자는, 하영이 쓰는 과정에 있는 허구적 공간과 허구적 인물이다. 그러나 작가가 집필할 때 실제 만재도와 해녀 공동체를 참고했을 것으로 짐작되기에, 우리 역시 인물 구축 과정에서 실제 만재도와 해녀들을 참조했다.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만재리에 위치한 만재도는 면적 약 0.75km<sup>2</sup>로, 서울(605.2km<sup>2</sup>)의 약 1/807, 뉴욕(789km<sup>2</sup>)의 약 1/1052 크기에 해당한다. 현재 만재도로 가는 방법은 목포에서 가거도로 향하는 정기 여객선을 이용해 경유하는 것이다. 파도가 잔잔해 바닷길이 열릴 때 약 5시간 반의 항해 끝에 도착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서남단 섬인 가거도와 이웃한 만재도는 6.25 전쟁 당시 전쟁 소식을 듣지 못했으며, 전사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가라지 어획량 급증으로 '돈섬'이라 불리던 만재도는, 일부 가정의 자녀를 일본 메이지대로 유학 보낼 정도로 번성했다. 그러나 1961년부터 가라지가 잡히지 않지 시작했고, 1965년 식량파동까지 겹치며 쇠퇴했다. 2022년 기준 만재도 인구는 100명 미만이며, 신안군 흑산면 평균 연령은 55세이다.

농토가 거의 없는 만재도에서 주민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한다. 배우가 개인 답사 차 다녀온 바에 따르면, 2025년 현재 만재도에는 해녀 다섯 분이 물질을 이어가고 있다. 전복, 소라, 해삼 등이 주요 수산물이며, 특히 돌미역이 가장 유명하다. 돌미역은 7월 한 달 동안만 조류가 약하고 바람이 덜 부는 시기에 채취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다른 어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 물질은 생존과 직결되는 작업이기에 해녀들은

과거부터 공동체 단위로 작업해 왔다. 만재도는 파도와 조류가 거센 지역인 만큼 안전에 대한 주의가 특히 필요하다. 해녀들은 경력과 실력에 따라 상군(15-20m 잠수 가능), 중군(10-15m), 하군(5-10m)으로 나뉘며, 상군 해녀가 작업 및 공동체 규칙 결정권을 가진다.

## 맨해튼

맨해튼은 뉴욕시 다섯 자치구 중 하나로, 허드슨강, 이스트강, 뉴욕 하버에 둘러싸인 섬이다. 면적은 약 59.1km<sup>2</sup>로, 서울의 약 1/10 규모다.

2025년 기준 약 169만 명이 거주하며, 주중에는 약 390만 명 이상의 통근 인구가 추가로 드나든다. 맨해튼 중앙에는 전체 면적의 5.8%를 차지하는 센트럴파크가 자리하고 있으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 초고층 빌딩이 뻗뻗이 들어서 있다. 남쪽 월스트리트에는 세계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다. 이 작은 섬은 세계 경제의 심장이자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독보적인 경관을 이룬다.

맨해튼 평균 연령은 39.3세다. 인구 구성은 백인 46.8%, 히스패닉/라티노 23.8%, 아시아계 13.0%,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11.8%, 기타/다인종 4.6%로 구성된다.

가구 평균 소득은 약 101,078달러, 평균 임대료는 약 2,169달러이다. 특히 임대주택 중 34.7%가 월 3,000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이다. 주택 유형은 원룸(14.8%), 1 베드룸(39.2%), 2-3 베드룸(42.4%), 4 베드룸 이상(3.5%)으로, 소형 주택 비율이 높은 편이다. MTA 뉴욕시 지하철은 맨해튼에 100개 이상의 역을 운영하며, 대중교통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동 수단은 지하철, 버스, 도보가 주를 이룬다.

## 인물 구축

<엔들링스>는 2019년 미국 초연 당시 영어와 한국어가 혼합된 대본으로 공연되었고, 하영과 해녀들은 아시아계 배우가, 백인 남편 및 무대감독들은 백인 배우들이 연기했다. 반면, 이번에 우리가 공연할 번역 대본은 전체가 표준어 한국어였으며, 출연 배우들도 모두 한국인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국에서, 한국인 배우들이 표준어 한국어를 사용하면서도 해녀와 백인 인물들을 각각 구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 만재도 - 해녀

언어는 그 인물에 대해 많은 정보를 준다. 억양, 단어, 문법, 목소리는 나이, 직업, 경제 계급, 거주 환경을 추정할 단서가 된다. 해녀들의 대사는 손혜정 사투리 코치의 도움을 받아 사투리 외피를 입혔다.

‘거시기’와 ‘그랑께’만으로 대화를 나누는 엑서사이즈를 통해 제스처 없이도 억양, 장단, 표정, 태도만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사투리를 구현하는 데에 있어서 억양이나 특이한 단어에 의존하기보다 질감, 정서, 뉘앙스로 접근해야 함을 깨달았다.



대사 작업에서는 사투리를 과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입히기 위해 예를 들어 ‘언니’를 ‘어’와 ‘으’의 중간 발음인 ‘/은/니’로, ‘했지’를 ‘지’와 ‘재’의 중간 발음인 ‘/재/’로 발화하는 식으로 다듬었다.

## 맨해튼 - 백인 남편, 백인 무대감독

캐릭터를 연기할 때는 관객의 인식 속에서 배우가 ‘백인처럼 보이게’ 하는 감각을 강조했다. 배우들은 액팅코치 장재키와의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 서구 문화권, 특히 백인의 행동양식을 스터디했다. 그중 주요한 개념은 서구권 사람들이 인식하는 사적 공간(private space)에 대한 개념이었다. 일반적으로 서구권, 그중에서도 북미의 백인 문화권에서는 한사람이 그 어디에 있던 두 팔을 벌렸을 때 팔이 닿는 영역이 만드는 권역을 그 개인의 사적 공간이라고 인식하며, 혹여나 이 공간의 경계가 무너졌을 시 즉각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한다. 흥미로웠던 지점은 한국에서는 무례하게 여겨지는 다리를 꼬거나 테이블에 발을 올리는 행동들이 북미의 백인 문화권에서는 자신이 존재하는 사적 공간에 대한 권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사회적 제스처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다. 이를 바탕으로 <엔들링스> 안의 백인 인물들을 설계할 때, 사적 공간을 확장하는 신체 사용 및 사선 실루엣을 활용한 시각적 공간 장악을 타 인물군, 그중에서도 해녀 인물들과의 이질감을 만들기 위한 연기적 전략의 핵심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 [참고 자료]

### 기사 및 논문

- 1) 남인희·남신희, “[전라도]만재도의 봄<4>”, 드림투데이, 2015.6.4
- 2) 김정수, 「만재도 해녀 공동체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제42권 1호,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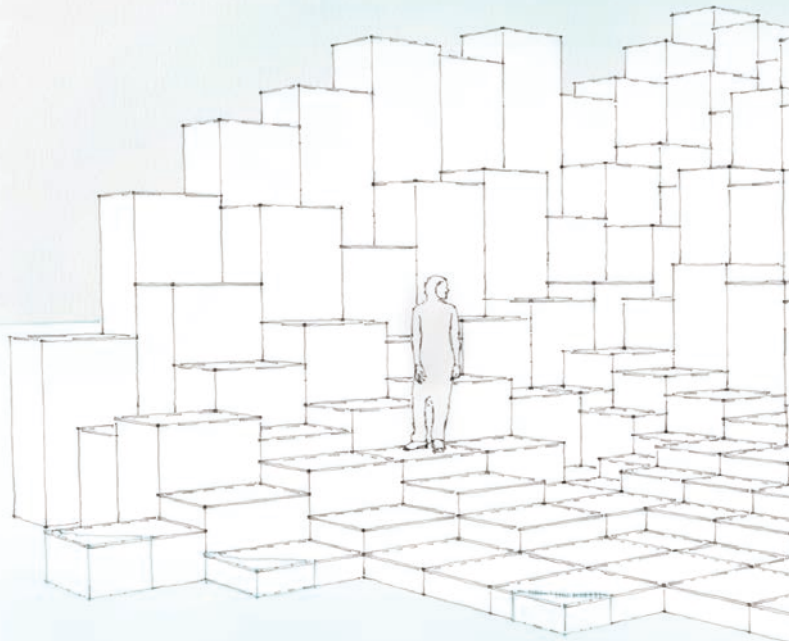
### 웹사이트

- 1) 주민등록통계시스템 “행정동별 평균연령”
- 2)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 “Manhattan borough, New York County, New York”
-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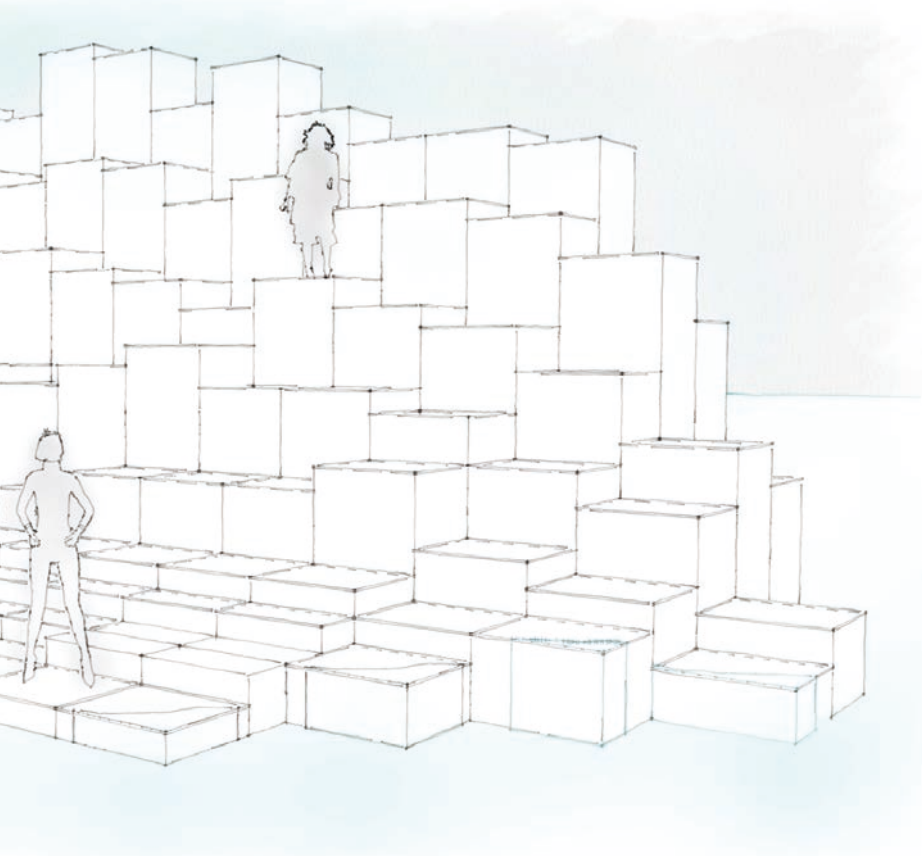
# 무대디자인 노트

무대에 높낮이가 저마다 다른 블럭들이 모여 있다. 개인의 삶과 역사가 마치 바닥에서 축적되어 솟아오른 것처럼, 혹은 저마다의 삶의 서사가 켜켜이 쌓여 있는 것처럼 자신이 서 있는 ‘땅’ 그 자체로 보였으면 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가 쌓아 놓은 서사 위에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쌓는다. 어떤 이야기는 거친 바다에 휩쓸려 깎이고, 어떤 이야기는 모진 풍파를 견디고 버틴다. 저마다의 다른 공간들이 모여 육지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곳이 어디든, 그 사람이 누구든 이야기는 서로 만나고 부딪치기를 반복하며 축적된다. 외로워 보이는 외딴 섬과, 홀로 바닷가에 놓여진 어느 돌덩이가 갓은 태풍과 비바람 속에 덩그러니 어딘 가로부터 떨어져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잃지만 앓는다면 길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의상디자인 노트

만재도 섬의 한솔, 고민, 순자는 오늘도 바다에 들어갑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세 명의 노년 여성. 무대 위에서 해녀복으로 갈아입은 그녀들의 모습은 마치 전투복을 갖춰입은 “슈퍼히어로” 같습니다.

맨해튼 섬의 하영은 오늘도 글을 씁니다. 연극의 끝을 내지 못하고 고민하며 방향하던 그녀는 개성 없는 실내복을 입고 있다가 한국인의 정체성인 한복을 갑옷처럼 두릅니다.

이들의 사이를 중흥무진 하는 힘 있는 백인 무대감독들은 올블랙 의상에 흰색 완장을 차고 있습니다.







# 텍스트·자막해설 디자인 노트

-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의 한글자막해설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 위 역할과 동시에 ‘한글’을 중심으로 청각의 시각화를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 디자인
- 이 작품에 ‘연극 언어’로 존재하는 텍스트의 감각적 성질을 이미지로 치환하기
- 무대 위에 텍스트, 그러니까 ‘말’, ‘한글’이 점유하는 공간 설정하기. 무대 위 부동산 차지하기
- 소리 값에 앞서 그 ‘말’이 가진 힘을 감지하기

<엔들링스>의 텍스트·한글자막해설 디자인은 위의 디자인 노트를 중심으로 여러 방식을 시도했다. 만재도의 한솔, 고민, 순자는 다양한 폰트가 섞이며 생기 넘치고 다채로운 변주를 만들어낸다. 맨해튼의 하영은 문화적 다양성에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모노톤의 고딕체 한 가지로만 이뤄져 있는데, 간혹 발화 불륨에 따라 텍스트도 커지며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 단조로움과 불안함을 동시에 지닌 상태를 담아낸다. 백인연극(무대감독)은 마치 고루한 전문서적을 읽는 듯한 명조체로 이뤄져 있고 이들의 말은 유독 넓고 길게 채워지며 당연하다는 듯 공간을 점유한다.





# HOLLYWOOD

## 할리우드는 영원해

(무대감독) 오, 나의 백색 신이시여, 제 백색의 기도를 들으소서

- #1 한 명의 백인이 곧 죽을 것이거나 한 명의 백인이 오래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은 그들을 그리워하지만 그들은 갔고 갔으며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백인 연극은 슬픔에 대한 것입니까?

<엔들링스>의 음향은 다양한 바다의 풍경, 노련한 해녀들을 감싸는 소리의 결을 무대 위에 세밀하게 펼쳐 보이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마치 하영이 붙들고 집착하는 연극들처럼. 만재도라는 작고 조용한 섬, 그곳에서 평생을 물질하며 살아온 해녀들의 삶은 매일같이 변화무쌍한 바다와 호흡을 맞추는 일일 것이다. 생기 넘치는 아침 바다에서부터 윤슬이 찬란하게 부서지는 잔잔한 해변,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깊고 어두운 바닷속까지. 끊임없이 표정을 바꾸는 바다의 다채로움을 소리로 그려내기 위해, 원경과 근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거리감의 음향 요소들을 구성했다. 먼 창공에서 들려오는 물새의 울음소리, 바위에 부딪히는 큰 파도, 사르르 모래 사이로 스며드는 미세한 거품, 해녀가 바다로 뛰어들 때 일렁이는 물살, 그리고 기포가 부대끼며 울리는 섬세한 질감의 물소리까지—요소들을 쌓아 바다의 공간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해녀들이 조개와 전복을 캐기 위해 물속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 무대는 곧 바닷속 한복판으로 변모한다. 그 안에서 관객이 경험하는 사운드는 귀로 체감되는 압력 같은 것이기를 바랐다. 더 나아가 해녀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물결의 감촉과 숨을 참는 긴장감까지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랐다. 부드럽게 스며드는 기포의 입자들 위로 벨 트리와 풍경소리, 방울소리 등의 은은하고 반짝이는 울림을 얹어 수중에서 퍼지는 영롱한 빛이 수면 아래서 흔들리는 인상을 표현해보려 했다. 반대로, 바다가 거칠어지고 위험하게 요동치는 순간에는 천둥소리, 잔해가 낙하하는 종저역의 무거운 음향을 담가 깊이 가라앉도록 하여 위협적이면서도 어두운 바다의 얼굴을 보여주고자 했다.

또한 해녀들의 삶을 채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소리—‘TV’  
만재도에서 TV는 오락이고 습관이고 위로다. 또한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거의 유일한 창구이자 해녀들의 일상과 내면을 채우는 배경음이기도 하다. 귀에 익숙한 방송 시그널 음악의 선율은 위트 있게 느껴 지기도 하지만, 무대 위에 재현되는 현실의 경계가 일시적으로 흐러지고, 때로는 그녀들을 전시하려는 시선을 반영하기도 하는 아이러니하고 복합적인 층위를 만들어낸다.



# 두산인문극장 2025: 지역 LOCAL

## 엔들링스

## Endlings

by Celine Song

5.20-6.7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대전예술의전당 제주아트센터

**작** 셀린 송(Celine Song)

**번역** 조은정 임지윤(PIC)

**연출** 이래은

**드라마터그** 김지혜

**윤색** 전서아 \*윤색 대본은 연습 과정에 사용됨

**출연** 경지는 박옥출 백소정 양대은 이미라 이현 홍윤희

**조연출** 김태령 이은채

**프로덕션 무대감독** 이효진

**무대·소품디자인** 장호

**무대제작** 에스태이지(s\_TAGe, 대표 이윤중)

**제작팀장** 정우상

**제작팀** 김세진 권오준 이종민 차승호 정우근 임대환  
정재현 박호준 이승윤

**작화팀** 작화공간

**작화팀장** 이남련

**작화팀** 박지원 이재형 김유진 김용선 이정민

**소품제작** 아이엠(im)

**조명디자인** 신동선

**조명어시스턴트** 김은빈

**조명오퍼레이터** 전현식

**조명팀** 전현식 홍주희 홍유진 원종욱 허정현 정하영

**음악·음향디자인** 임서진

**음향·영상오퍼레이터** 김태령

**영상디자인** 박영민

**텍스트·자막해설 디자인** 이청

**텍스트·자막해설 오퍼레이터** 이수림

**영상제작** 엘리스 스튜디오 프로젝트 (대표 방지현)

**의상디자인** 김미나

**의상제작** 코스튬스토리

**의상 어시스턴트** 백송이

**분장디자인** 장경숙

**인형·오브제 제작** 문제희

**움직임 디자인** 이윤정

**액팅 코치** 장재키

**사투리 지도** 손혜정

**코미디 워크숍** 김진아 안담

**무대 크루** 정지아

**접근성 기획·운영** 플랫폼안녕(대표 이청)

**접근성매니저** 이청

**터치투어 제작·운영** 이청

**투어 프로덕션 운영** 아트팟 (대표 오득영)

**투어 프로덕션 매니저** 김명주

**투어 프로덕션 무대감독** 이지혜

**그래픽디자인** 포인터스(Pointers)

**사진(프로필·설정·연습·공연)** 만나 사진작업실(대표 김신중)

**사진(관객과의 대화)** 스튜디오1024(대표 이재호)

**영상(공연 실황)** 헤즈스튜디오(대표 김선우)

**SNS콘텐츠제작** 필루미에르(대표 이화승)

**인쇄** 으뜸프로세스

**프로그램북 협력 에디터** 김상욱

**지역 투어**

**대전예술의전당**

2025.6.13-6.14

금 7시 30분 토 3시, 7시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제주아트센터**

2025.6.27-6.28

금 7시 30분 토 3시

**두산아트센터**

센터장 강석란

**예술사업1팀장 김요안**

공연기획 남윤일 신가은 이정민

홍보마케팅 강소라 강소정 한나래 박지희 김지영

티켓 이희정 김지은

사무 유은우

**예술사업2팀장 박찬중**

전시기획 장혜정 유진영 강하람 이운서 이예인

교육기획 정다운 김서진 이담빈

기술총괄 황동철

음향 신승욱 류호성

조명 황동철 왕은지 김수민

무대 강현후 박소연

하우스 권지은 유지민

**하우스 안내원**

김예지 이준(헤드 어시스턴트 매니저)

권도이 기나연 김경미 김나연 김상윤 김수빈 김하나

남연수 남혜민 송해원 신아영 양서은 유진아 이승규

이채민 이하은 이현지 임소은 임승현 조수빈 차승준

하수영

ENDLINGS had its Off-Broadway Premiere at New York Theatre Workshop,  
Jim Nicola, Artistic Director, Jeremy Blocker, Managing Director, 2020  
World Premiere of *Endlings* was produced by American Repertory Theater  
Diane Paulus, Artistic Director Diane Borger, Executive Producer

*Endlings* was developed during a residency at the Eugene O'Neill Theater Center's  
National Playwrights Conference 2018  
Preston Whiteway Wendy C. Goldberg  
Executive Director Artistic Director

*Endlings* was developed as part of The Playwrights Realm's Writing Fellowship  
(Katherine Kovner, Founding Artistic Director Robert Pereira, Producing Director)

# 두산 아트센터 교육 프로그램

## 2025 여름

Studio  
**D>C**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 두산아트스쿨

####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13기

두산아트센터 Studio DAC

- |         |                            |
|---------|----------------------------|
| 7.3-8.7 | 희곡 워크숍<br>배해률 (극작가)        |
| 7.4-8.8 | 연기·연출 워크숍<br>정진새 (극작가·연출가) |
| 7.5-8.9 | 연기·제작 워크숍<br>성수연 (배우)      |

#### 두산아트스쿨: 공연

8.11-8.14

오후 2시

두산아트센터 Space111

#### 극장, 경계와 확장

설유진 (극작가·연출가) 강보름 (연출가)

이홍도 (극작가·연출가) 창작집단 여기에 있다

### Studio DAC

#### 리딩 클럽

5.23-5.30

수금 오후 7시-9시

두산아트센터 Studio DAC

#### 나의 동네, 우리의 동네

이수현 (작가·번역가)


#### 아트 클래스

두산아트센터 Studio DAC

- |             |            |
|-------------|------------|
| 6.11-6.13   | 그리기        |
| 수금 오후 7시-9시 | 박지은 (미술작가) |
| 6.21-6.28   | 움직이기       |
| 토 오후 2시-4시  | 윤상은 (안무가)  |

예약·문의 두산아트센터

 @studio.dac\_doosan

 02-708-5001

 doosanartcenter.com

 webmaster@doosanartcenter.com

# 두산아트센터 2025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 공연 예술

### 연강홀 Yonkang Hall

뮤지컬 **고스트 베이커리** 2024.12.19-2025.2.23

뮤지컬 **라이카** 3.14-5.18

뮤지컬 **베어 더 뮤지컬** 6.3-9.14

### Space111

#### 두산아트랩 공연 2025

다원 **이태원 트랜스젠더-클럽 2F** 1.9-1.11

연극 **8월, 카메군과 모토야스 강을 건넌 기록** 1.16-1.18

연극 **감정 연습** 1.23-1.25

뮤지컬 **달리, 갈라** 기획전 2.20-2.22

연극 **그리고 남겨진 것은**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길고 긴 사이** 2.27-3.1

연극 **안젤리나 졸리 따라잡기** 3.6-3.8

연극 **물과 뼈의 시간** 3.13-3.15

연극 **변두리 소녀 마리의 자본론** 3.20-3.22

#### 두산인문극장 2025: 지역 LOCAL

연극 **생추어리 시티 Sanctuary City** 4.22-5.10

연극 **엔들링스 Endlings** 5.20-6.7

뮤지컬 **광장시장** 6.17-7.5

#### 공동기획

극단 작은방 | 연극 **견고딕걸** 3.29-4.13

글과무대 | 연극 **변아웃에 관한 농담** 7.19-8.3

#### DAC Artist

박주영 | 연극 **마른 여자들** 9.9-9.27

강동훈 | 연극 **도그 워커의 사랑** 10.28-11.15

####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연극 **이오진 신작** 11.25-12.13

## 시각 예술

### 두산갤러리 DOOSAN Gallery

두산아트랩 전시 2025 1.22-3.8

노혜리 개인전 4.2-5.10

두산인문극장 기획전 Ringing Saga 6.4-7.12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기획전 8.6-9.13

두산갤러리 기획전 10.15-12.13

## 교육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1.8-2.17, 7.3-8.9

두산아트스쿨: 미술 4.3-4.24, 11.4-11.25

두산인문극장: 강연 4.7-6.30

두산아트스쿨: 리서치 4.14-8.25

두산아트스쿨: 공연 8.11-8.14

두산아트센터 투어 10

Studio DAC 프로그램 4-12

## 공모

### 공연 예술

DAC Artist 1.6-1.23

두산아트랩 공연 5.7-6.4

공동기획 6.9-7.9

### 시각 예술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1.6-1.19

두산 해외 레지던시 4.21-5.4

두산아트랩 전시 6.2-6.15

두산아트센터 02.708.5001 doosanartcenter.com

두산아트센터 두산갤러리 02.708.5050 doosangallery.com

공연, 전시, 교육 및 공모 프로그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